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세례와 입교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와 입교식은 10월 첫째 주일에 있습니다. 그 동안 준비교육을 합니다.
- 교육선교회 임시 이사회가 오후 1시 30분에 모입니다.
- 사랑방공동체학교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 해주십시오.
- 다음 주일은 총회주일입니다. 총회를 위한 헌금을 마음 모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팔·티베트 대홍수 피해 이웃들과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중필 · 이현숙 집사 가정 (정흠 생일)
이창윤 집사 · 양일자 선생 가정 (어머니 생신)

강단을 꽃으로 : 장성아 집사 (생일)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농협(학교후원회계좌) 사랑방공동체학교(정태일) 351-1165-8216-4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4 - 35 호

2026년 8월 30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평화 기억 환대

내가 속한 개척자들 공동체는 지금 환대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공간은 산티아고의 알베르게처럼 사용자들에게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아니다. 그렇지만 여러 날 묵어가는 사용자들에게는 하루 2시간 정도의 노동을 요청한다. 우리는 이 개척자들의 집을 평화역(peace station)이라고 부르고 공동체의 식구들을 역의 역무원이라고 여기고 있다. 평화역은 평화의 길을 찾는 이들과 그 길을 걸어온 이들이 만나는 교차로이고 이 만남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고 평화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게 하려는 집이다.

나그네 생활 : 난민촌에서

나눔이나 환대는 부유하고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개척자들은 난민촌에서조차도 환대를 받고 그들의 신세를 진 적이 많다.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 처음에 난민들은 대부분 유엔이나 대규모 국제 구호단체들이 제공해준 천막에서 지내게 된다. 몇 가지 안 되는 품목의 식량들과 생활용품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 그들에게 신세를 지기 보다는 건 버룩이 간을 뽑아먹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급되는 물품들은 언제나 정확할 수도 없고 계획적일 수도 없어서 때로는 모자라고 때로는 일부 품목이 남아돈다. 난민촌에 들어가서 이들의 천막 한 귀퉁이에서 지내며 살다보면 무엇이 남고 무엇이 부족한지 환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난민들은 자기들에게 남는 것으로 물물 교환을 하거나 사고팔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든 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버려지는 식량을 받아서 먹고 남아도는 천막을 얻어서 난민촌에서 살아 갈 수도 있다. 난민촌에서 난민들의 도움과 환대를 받는 것은 민폐중의 민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고도의 지원 전술일 수 있다. 난민들은 남들로부터 무조건 받기만하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고 수치스럽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자신에게 그런 여유가 있다는 사실에서 새로운 자존심의 회복이 생긴다. 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남을 도울 때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과 애착이 생겨나는 법이다. 난민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물자나 식량뿐 만이 아니

라 사랑과 존중과 같은 사회적 관계다. 난민촌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 전쟁이나 재난을 통해 모든 것을 잃은 난민들이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시간이나 노력 혹은 지원된 물품 중의 여유분들을 타인들을 위해 베풀고 나눔으로서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난민촌에서조차 우리는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고 또 환대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파괴된 공동체는 다시 힘을 얻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구될 수 있다.

평화와 환대

사람은 갈등과 분쟁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 불쾌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는 파괴적인 방식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안전도 지키고 우리에게 불안을 느끼게 하는 타자의 안전도 같이 지키는 길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는 매우 의식적이고도 숙달된 훈련이 필요하다.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매뉴얼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하듯이 갈등과 불화를 평화적으로 대면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중력의 작용처럼 자연스럽지만 타자를 포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중력의 작용을 거스르는 것처럼 하늘의 은총이 필요한 것이고 일상에서는 기적처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다. 타자에 대한 환대와 포용은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삶의 방식이다. 그런 환대의 공간들이 우리 사회에서 늘어날수록 평화의 생태계는 더 확장되고 튼실해진다. 환대는 환대를 경험한 이들에 의해 전파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환대의 파토스(pathos)를 전파하는 것이다. 마치 선한 바이러스를 퍼트리듯 평화를 전염시키는 것에 비견될 수 있다.

* 산돌교회 여름 수양회 특강 자료에서 중략하여 발췌한 글입니다.

< 개척자들 송강호박사 >

한주간의 말씀

“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

< 마가복음 13장 7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태일 목사

찬송 : 560 413 / 429

기도 :

성경 : 시편 106편

제목 :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1. 조상들의 반복된 죄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원
 - 1) 조상들은 계속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매 번 조상들을 구원하셨다.
 - 2) “우리도 계속... 죄를” <6>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여주십시오” <47>
 - 3) 공적(국가, 교회)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도하자.
2. 죄가 반복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 1)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7> “잊어버렸습니다” <22>
 - 2) 범죄를 반복하는 것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 3) 평소 일상생활에서 받은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자.
3.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십시오
 - 1)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45>
 - 2) 하나님은 언약(구원 약속 = 하나님-자녀)을 기억하시고 지키신다.
 - 3) 죄를 지었을 때,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 행

저에게는 꽤 오래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동생과 함께 남미에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프로젝트의 첫 단추로 동생 흥인리와 오사카로 3박4일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동생과 단둘이 가는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동생이 아직 미성년자이다 보니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고, 일정도 금전적인 부분도 정확히 정하지 않은 채 떠난 여행이라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새벽 여섯시부터 유니버설 스튜디오 오픈런을 했고, 나라에서는 사슴에게 무릎을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오사카 시내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했고, 번지점프에 미끄럼틀까지 탔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짝짝 굴러모아 쓴 여행이었습니다.

많은 순간이 기억에 남지만, 그중 으뜸은 마지막 날 찍은 프리쿠라입니다. 프리쿠라는 일본의 인생네컷 같은 것인데, 의도적으로 보정을 과도하게 넣어서 찍는 사진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선물도 사고 각자 쇼핑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몸도 많이 피로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동생은 궁시령 궁시령하면서도 꽃받침이며 브이하며 하트며, 하자는 포즈는 다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여행이 가능했던 건 동생 덕분이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에 하루 2만 보 넘게 걸으며 몸에 진이 다 빠졌는데도 동생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사진 찍는 것도 잘 기다려주었습니다. 사실 저와 동생은 풍기는 분위기가 닮았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성향은 꽤 다릅니다. 제가 동생보다 성격이 더 강해서 여행이 제 뜻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동생이 많이 배려해주었습니다. 착한 동생을 둔 덕에 큰 다툼 없이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 둘 다 어리지만, 이번 여행에서 잘 지낸 걸 보니 남미까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아직 저 혼자만의 계획이라 동생과는 상의가 더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일본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여행의 거리를 늘려가다 보면, 언젠가 남미에 닿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늘푸른사랑방 이나영 청년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시 편 62 : 5-8

32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히브리서 9 : 11-12

570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마가복음 13 : 1-13

79

설교자

새작사랑방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정태일 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406

288(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김기환 차현주 / 봉헌위원 : 정승희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흥인 정아인

공동기도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은 요란하고 아픔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널리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난리의 소문을 들어도 끝까지 견디도록 맡겨드립니다. 아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제자들의 감탄, 예수님의 파괴 예고.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1>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2>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종말의 징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4> 예수님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7 개역> 말씀하시며 많은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은 세상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최근 우리는 전쟁, 지진, 가뭄, 홍수, 산불, 전염병 등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듣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13>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개인의 종말도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이어람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방학 때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 할 보따리를 한 아름씩 안고 꾸러기 세 친구들이 등장했습니다. 툭툭 튀는 목소리를 내며 씩씩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자연예배당이 밝은 기운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다시 신나는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꾸러기 발에 무성해진 풀을 정리했는데 나음이가 1학기 때보다 발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놀이 할 때 보니 셋 다 기꺼이 양보도 잘했습니다. 방학동안 키만 자란 게 아니라 마음도 한 뼘 씩 쑥 자란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꾸러기들이 보자기를 가지고 잘 노는 모습을 보시고 다양한 색 보자기와 인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매일 보자기와 인형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7월에 보았던 뮤지컬 '리나, 슈퍼히어로' 음원을 들려주니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모래 놀이터에서 모래와 물을 가지고 실컷 놀았고 금요일 공동체놀이 시간에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와 '여우야 여우야 뭐 하니?' 놀이를 재미있게 했습니다. 끝나는게 아쉽고 놀아도 놀아도 또 놀고 싶은 꾸러기들의 행복한 놀이터 꾸러기학교입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희망찬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등교를 하는데 어린이들이 하썸 ~ 하며 뛰어와 안기는데 .. 새학기의 부담이 훌! 날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별로 흩어져 방학 이야기를 나누고 숙제를 검사하는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살다가 만나면 반가운 사이구나 싶은 마음이 새삼 들었습니다. 오후 시간은 임원선출이 있었고 박빙속에서 리야 주운 예나가 회장 총무 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론 화요일에서 목요일 까지 반별 여행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야구경기를 보기로 되어있던 현선생님반 친구들은 여행 전날 응원봉을 만들며 종이에 테이프를 붙이느라 교무실을 들락거라

배움과 가르침

며 기대를 감추지 못했고, 전선생님반은 갑탄이 나오는 멋진 경기 도서관에서 찍은 사진을 함께 공유해서 마음을 같이해 주었고, 하선생님반은 계곡에서 물에 풍덩 빠지는 헤프닝이 찜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린이학교가 이렇게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굳건히 걸어가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지리산 종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정을 하루 줄였지만, 긴장감이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화창한 날씨속에서 긴 시간을 달려 도착한 지리산은, 여느 때와 같이 높고 웅장했습니다. 오르막과 더위와 마주하면서도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등산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멋쟁이들은 맛있는 음식들, 영롱한 밤하늘의 별빛들, 냄새와 파리가 맴도는 화장실, 친절환 등산객들, 광대한 풍경속에서의 일출까지 맛보고 하산에 성공했습니다.

등반하지 못한 이른바 환자 모듬은 근처에 있는 의탄교회/용계리교회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차라리 산에 오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우거나 도와드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커다란 대접을 받으며, 하산한 멋쟁이들과 합류하여 여행은 첫 출발로서 아름답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 풍물경연을 위해 맹연습을 거친 멋쟁이들은, 금요일 아침 포천시 대표로 당당히 수원으로 떠났습니다. 총 27팀 중 10번째인 순서가 오자, 멋쟁이들은 더할 나위 없이 열정적으로 한바탕 신나게 노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흥겨운 순간들이 끝나고는, 공동체학교 교장선생님과 촬영을 도와주신 노미현 사모님, 간식과 음원을 전해준 이여빈 동문, 그리고 함께 관람한 모든 멋쟁이가 함께 후련하게 웃었습니다. 결과는 전체 중에서 7등! 장려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일주일 많은 멋쟁이들에게 귀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모로 기도와 응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학과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좋은 시작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 교사 : 이어진 >

2026년 여름 공동체생활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찌는 듯한 불볕더위로 무척 힘들었는데 입추, 처서가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여름휴가 기간을 에어컨을 친구삼아 집에서 보내면서 여름 공동체생활을 통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여름 공동체생활은 적당한 더위와 시원한 공간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와 말씀을 들으며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특히, 교육공동체에서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아침식사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 근사한 양식이었어요. 3박 4일 동안 편안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시간은 첫날, 저녁시간 공동체 훈련 중 '나는 누구인가?' 적어보는 시간이었는데 오랜만에 나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 때는 내가 누구인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현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사랑방 공동체의 지체로서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 좋은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2026년 여름 공동체생활은 3박 4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긴 여운이 남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복된 삶. 좋은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루터기사랑방 김영화 권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태일 목사

찬 송 : 455장, 452장

성 경 : 시편 1편 1절~6절

말 씬 :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 * 네팔 홍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다.
- * 슬픔을 당한 사람, 삶의 터를 잃은 사람, 구도하는 사람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공협 수련회를 위해>

- *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 * 한공협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운 공동체들을 위해.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 * 2학기를 시작한 공동체학교를 위해 기도하다.
- * 여행 중인 학교를 위해, 교육청 등록 준비를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학교들이 2학기 개학을 하면서 공동체는 활기를 띄고 바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베다니하늘주방도 아침 일찍 불이 켜지고, 저온창고에도 식재료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영농부는 고추따기를 계속하고 있고 옥수수를 마지막으로 땀습니다. 이제 김장을 준비하는 배추심기를 해야 합니다.

수술 후 퇴원한 식구와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식구등 이제 생활공동체가 완전체가 됩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영미 전도사>